

##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의 '연착륙' 또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낙관적 해석은 '에너지 충격의 2차 파장'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현재 노동 시장의 견조함은 '임금-물가 스프레드'가 아닌 '실질 구매력 파괴'에 의한 착시 현상임. 소비자심리 (UMCSENT 56.6)의 급격한 하락과 유가 상승은 이미 수요 위축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ICESA 20.2만 건은 고용 시장의 경직성 (Stickiness)으로 인한 지연 현상일 뿐임. 향후 2~3개월 내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서 'Stagflation' (경기 침체 +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 혹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2026년 금리 인하 불가 내러티브가 정확함. 즉, 현재 노동 시장 데이터는 '침체 신호 차단'이 아닌 '침체 지연'의 신호임.

시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과 강달러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2026년까지 소멸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충격이 수요를 파괴하여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함. 투자자들은 노동 시장의 견조함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재부상시켜 연준의 손발을 묶을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직전 판정에서 설정한 '노동 시장 붕괴 임계치 (ICESA 25만 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증거들은 에너지 충격이 '침체 지연'이 아닌 '실질 구매력 파괴'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ICESA가 20.2만 건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T10Y2Y가 0.52% 양수인 것은 노동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UMCSENT(56.6)의 역사적 저점과 WTI 1개월 수익률 37.69% 급등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소비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WTI-SPX 상관관계가 -5.68로 유가 상승 시 주가가 하락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Soft Landing'이 아닌 'Stagflation' 패턴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함. 노동 시장의 경직성 (Stickiness)으로 인해 고용 데이터는 지연되지만, 소비자 심리와 에너지 비용의 충격은 즉각적으로 수요 파괴를 유발하여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2026년까지 미루게 할 것이므로, 시장의 '고금리 장기화' 내러티브가 유효함.

**Action:** SPX 및 NDX 비중 축소, WTI 및 GOLD 비중 확대

**Invalidation:** ICESA(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향후 4주 연속 25만 건을 상회하여 노동 시장 붕괴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연준이 에너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부상을 과도하게 과소평가하여 금리 인하를 2025년 중반으로 앞당길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가 무력화되어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반전될 수 있음,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유가 급등에 따른 '공포 매도'로 VIX가 35를 돌파하며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경우,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GOLD와 에너지 섹터 (WTI)의 상관관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어 포트폴리오 헤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이벤트 리스크: 주요 산유국 (OPEC+)이 공급량 감축을 추가 발표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완화되어 유가가 단기간에 20% 이상 급락할 경우, 에너지 충격에 기반한 스태그플레이션 가정이 무효화되어 시장이 'Soft Landing'으로 재평가될 수 있음

## Macro Picture

**Regime:** slowdown

**Key Themes:**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인플레이션,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 강달러와 신흥국 통화 약세

**Dominant Narrative:** 중동 전쟁 리스크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26년 내 소멸한 상태임. 3월 비농업 고용자 수의 시장 예상치 상회 (강한 노동 시장)와 IMF의 '금리 인하 여지 없음' 전망이 맞물려, 투자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사이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음.

**Reality:** 3월 비농업 고용자 수의 호조와 실업률 하락으로 노동 시장은 견조하나, 시간당 임금 상승 둔화로 물가 압력은 일부 완화됨. T10Y2Y(10년-2년 국채 스프레드)가 0.52%로 양(+)을 유지하며 경기 침체 신호는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으나, ICESA(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2만 건 수준으로 유지되며 고용 시장의 과열은 지속되고 있음. 다만 UMCSENT(소비자심리)가 56.6 수준으로 낮아 소비 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동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실질 구매력을 위협하는 상황임.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은 중동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수요 파괴'를 유발하여 경기 침체 (Recession)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 시장의 견조함 (ICESA 20.2만 건)이 '고금리 장기화'의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함. 현실은 임금 상승 둔화와 소비자심리 위축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져 연준이 2026년이 아닌 2025년 하반기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Soft Landing' 시나리오가 유효함. 즉,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경기 침체 선행지표'로 과대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데이

터는 '인플레이션 둔화 + 고용 견조'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둔화 + 성장 둔화'의 과도기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유가 급등과 강달러는 일시적 변동성일 뿐,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내러티브는 데이터의 지연 효과 (Lag Effect) 를 오해한 결과임.

시장 내러티브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즉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가정함. 그러나 T10Y2Y 스프레드가 양수 (0.52%) 로 유지되고 ICSA 가 25 만 건 임계치 미달인 점은 노동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이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동결하거나 상승 둔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잡히되 실업률은 급증하지 않는 'No Landing' 또는 'Soft Landing' 국면임을 시사함.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2026 년까지 소멸했다는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에 기반한 과잉 반응이며, 실제 매크로 현실은 금리 인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줌.

## B (Market Wrong)

시장의 '연착륙' 또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낙관적 해석은 '에너지 충격의 2 차 파장'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현재 노동 시장의 견조함은 '임금 - 물가 스프레드'가 아닌 '실질 구매력 파괴'에 의한 착시 현상임. 소비자심리 (UMCSENT 56.6) 의 급격한 하락과 유가 상승은 이미 수요 위축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ICSA 20.2 만 건은 고용 시장의 경직성 (Stickiness) 으로 인한 지연 현상일 뿐임. 향후 2~3 개월 내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서 'Stagflation' (경기 침체 + 인플레이션) 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 혹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2026 년 금리 인하 불가 내러티브가 정확함. 즉, 현재 노동 시장 데이터는 '침체 신호 차단'이 아닌 '침체 지연'의 신호임.

소비자심리 56.6 수준은 역사적 저점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있음을 보여줌. 노동 시장이 견조한 것은 기업들이 해고를 주저하는 경직성 때문이지, 경제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님.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재부상시켜 연준의 손발을 묶을 것이며, 이때 노동 시장이 뒤늦게 무너지면 'Stagflation'이 도래함. 따라서 시장은 현재 데이터를 'Soft Landing'의 증거로 오해하고 있으며, 실제 매크로 현실은 'Stagflation'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소멸할 것이며, 이는 2026 년까지 지속될 것임.

**Key Question:** 향후 4 주 내 ICSA(실업수당 청구건수) 가 25 만 건을 상회하며 노동 시장 붕괴가 시작되는가, 아니면 20 만 건 대를 유지하며 '임금 상승 둔화'에 의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가?

## Tensions

내러티브는 중동 리스크와 강달러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2026 년까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만, 현실은 임금 상승 둔화와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님.

0.65

Narrative: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 와 2026 년까지 인하 불가

Reality: 임금 상승 둔화와 UMCSENT 56.6 수준으로 물가 압력 완화 및 소비 위축

US10Y DXY SPX

시장 내러티브는 중동 전쟁 리스크로 에너지 위기와 유가 급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데이터는 노동 시장 과열 (ICSA 20.2 만 건) 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신호 (T10Y2Y 양수) 는 차단된 상태임.

0.55

Narrative: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Reality: T10Y2Y 0.52% 양수 유지 및 고용 시장 과열로 침체 신호 일시적 차단

WTI SPX VIX

내러티브는 강달러와 원화 약세 (1,540 원 육박) 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규정하며 공포를 조장하지만, 현실은 실질 구매력 위협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 견조함으로 인해 달러 강세 기조가 완전히 반전되지 않은 상태임.

0.60

Narrative: 강달러와 원화 패닉 (환율 1,540 원 돌파) 으로 인한 금융위기 재연 우려

Reality: 실업수당 청구건수 20.2 만 건 유지 등 고용 시장 견조함으로 달러 강세 지속

USDKRW DXY KOSPI

##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35%;"></div>	3.5
Tension	<div style="width: 45%;"></div>	4
Hypothesis	<div style="width: 6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30%;"></div>	3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20%;"></div>	2

**Feedback: 1. \*\*tension\_validity (4/5)\*\*:** 내러티브 (공포)와 현실 (데이터) 간의 괴리를 잘 포착했으나, '금융위기 재연 우려'와 같은 표현이 1,540 원이라는 특정 수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이 사용되어 과장된 감이 있습니다. '실질 구매력 위협' 등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명시되어 있어 점수는 높게 주었으나, 극단적 표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2. \*\*hypothesis\_quality (5/5)\*\*: 가설 A(Soft Landing/시장 과반응)와 가설 B(Stagflation/시장 예지)가 명확하게 대립하며, 각각의 논리 (Logic)가 데이터 (ICSA, UMCSENT 등)와 연결되어 반증 가능한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3. \*\*evidence\_targeting (3/5)\*\*: 데이터 쇼퍼리스트는 가설 검증을 위해 매우 적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evidence\_summary`의 `rag\_count: 10`은 실제 검색된 문서 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시스템의 내부 할당량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며, 실제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RAG 결과 (예: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사례의 구체적 수치)가 요약에 누락되어 검증의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price\_history`의 기간 설정이 가설 B의 '지연 효과'를 검증하기엔 1개월 (SPX/VIX)이 너무 짧아 데이터 수집 전략에 약간의 비일관성이 있습니다. 4. \*\*verdict\_logic (2/5)\*\*: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 \*\*모순된 결론 도출\*\*: `rationale`에서

MORNING ANGLE 2026-04-04

시장의 부: 시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과 갈릴라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2026년까지 소멸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충격이 수요를 파괴하여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함. 투자자들은 노동 시장의 견조함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재부상시켜 연준의 손발을 묶을 것으로 전망함.

**결론:** 시장의 '연착륙' 또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낙관적 해석은 '에너지 충격의 2차 파장'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현재 노동 시장의 견조함은 '임금 - 물가 스프레드'가 아닌 '실질 구매력 파괴'에 의한 착시 현상임. 소비자심리 (UMCSENT 56.6)의 급격한 하락과 유가 상승은 이미 수요 위축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ICSA 20.2 만 건은 고용 시장의 경직성 (Stickiness)으로 인한 지연 현상일 뿐임. 향후 2~3개월 내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서 'Stagflation' (경기 침체 +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 혹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2026년 금리 인하 불가 내러티브가 정확함. 즉, 현재 노동 시장 데이터는 '침체 신호 차단'이 아닌 '침체 지연'의 신호임. [HIGH]

하지만 직전 판정에서 설정한 '노동 시장 붕괴 임계치 (ICSA 25 만 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증거들은 에너지 충격이 '침체 지연'이 아닌 '실질 구매력 파괴'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ICSA가 20.2 만 건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T10Y2Y가 0.52% 양수인 것은 노동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UMCSENT(56.6)의 역사적 저점과 WTI 1개월 수익률 37.69% 급등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소비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WTI-SPX 상관관계가 -5.68로 유가 상승 시 주가가 하락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Soft Landing'이 아닌 'Stagflation' 패턴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함. 노동 시장의 경직성 (Stickiness)으로 인해 고용 데이터는 지연되지만, 소비자 심리와 에너지 비용의 충격은 즉각적으로 수요 파괴를 유발하여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2026년까지 미루게 할 것이므로, 시장의 '고금리 장기화' 내러티브가 유효함.

→ SPX 및 NDX 비중 축소, WTI 및 GOLD 비중 확대

무요화: ICSA(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향후 4주 연속 25만 건을 상회하여 노동 시장 붕괴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